

대한항공-아시아나 통합 '국적항공사' 출범

산은, 한진칼에 8천억 투입... 최대주주 올라
LCC 단계적 통합... KCGI 반발 걸림돌 많아

정부와 산업은행이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을 통합해 '단일 국적항공사' 체제로 전환하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국적항공사 출범을 알렸다. 이번 거래를 통해 탄생하게 될 국적항공사는 글로벌 항공산업 '톱10' 수준의 위상과 경쟁력을 갖추게 된다. ▶관련기사 20면
산은은 16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통합을 추진한다"며 "통합 국적항공사 출범을 통해 국내 항공산업의 근본적인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것"이라고 발표

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 오전 산업경쟁력 강화 관계장관 회의를 열어 아시아나항공 정상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같은 결론을 내렸다.
거래내용은 산은이 한진그룹 지배구조 최상단에 있는 한진칼에 8,000억원을 투입한다. 5,000억원은 제3차 배정 유상증자 참여로, 3,000억원은 대한항공 주식을 기초자산으로 한 교환사채(EB)를 인수하는 방식이다.

한진칼은 이 8,000억원을 대한항공에 대어한다고 공시했다. 이와 함께 한진칼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위한 대한항공의 2조5,000억원의 유상증자에 참여한다. 한진칼에 배정된 몫은 7,317억원으로 주식취득 뒤 한진칼의 대한항공 지분율은 29.2%가 된다. 주식취득 예정일은 내년 3월 13일이다.
대한항공은 유상증자 대금으로 아시아나항공에 1조8,000억원을 투입한다. 아시아나항공 신주 1조5,000억원을 인수한다. 주식취득 뒤 대한항공의 아시아나항공 지분율은 63.9%가 돼 최대주주로 올라선다. 주식 취득 예정일은 내년 6월 30일이다.
대한항공은 또 아시아나항공 영구채

3,000억원을 인수한다.
산은은 양사 자회사인 저비용항공사(LCC) 3사(진에어·에어부산·에어서울)에 대해 단계적 통합을 추진한다. 중복사업은 정리하고 고용안정 등에 남은 자금을 쓸 예정이다. 또 노선운영 합리화·운영비용 절감 등 수익성 제고도 가능할 것이라고 산은은 전망했다.
그러나 통합과정에서 넘어야 할 산도 많다. 우선 한진그룹 경영권을 두고 조원태 회장과 대립하는 행동주의 사모펀드(PEF)인 KCGI가 아시아나항공 인수를 반대하는 점은 커다란 걸림돌이다.
산은이 한진칼의 제3차 배정 유상증자에 참여하면 조원태 회장은 KCGI 측과 경영권 다툼에서 유리해질 수 있다.

이와 함께 공정위의 기업결합 승인도 필요하다.
통합 국적항공사를 갑질·탈세 등 각종 의혹으로 실형선고를 받아 도덕성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한진그룹 총수일가에 맡기는 것에 대한 우려도 있다. 이와 더불어 중복인력 구조조정도 주요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
최대협 산은 부행장은 "한진칼 및 주요 계열사 경영진과 계열주의 윤리경영을 감독하기 위해 독립기구인 윤리경영위원회를 설치하겠다"며 "현재 양사의 중복인력은 800~1,000명으로 추산되는데 인위적 구조조정을 하지 않겠다는 한진가의 약속을 받아놓는 상태다"고 말했다.
/이나라 기자

전남대·순천중앙 병원
일부 병동 '코호트 격리'

전남대병원발 코로나19 지역감염이 확산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 일부 병동을 코호트 격리하고, 외래진료실과 응급실을 17일까지 폐쇄한다고 밝혔다.
16일 오후 6시 기준 광주지역 코로나19 확진자는 569명이다. 4차 지역감염이 시작된 지난 7일 이후 51명이 확진됐다. 주요 유형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전남대병원 17명, 순천 순행 2명, 광주교도소 10명, 유흥업소 11명, 타 지역 확진자 관련 3명이다.
이날에만 전남대병원 입주업체 직원 2명(광주561·562번), 의료진 1명(563번), 입원환자 보호자 1명(564·569번), 입주업체 직원 지인 1명(565번), 입주업체 직원 자녀 2명 등 7명이 추가 확진됐다.
지난 13일 첫 확진자(546번)가 나온 뒤 14일 5명, 15일 3명, 이날 8명 등 나흘간 모두 17명이 확진됐다. 의사 4명, 간호사 2명, 방사선사 1명, 환자 2명, 보호자 3명, 입주업체 직원 2명, 입주업체 직원 지인과 자녀 3명 등 병원 내 다양한 직군·환자·보호자 등에게 전파됐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 전소사를 위해 4,776명을 검사해 양성 17건, 음성 3,216명이 음성 판정을 받았으며 1,543명은 진행 중이다.
의사 36명, 간호사 121명, 환자 171명, 보호자 125명 등 497명은 자가격리 중이다.
방역당국은 외래·응급실 폐쇄기간도 17일까지 연장했다. 병원 1동 6층 신경외과 병동, 11층 감염내과 병동을 코호트 격리했다. 6층에는 환자 35명, 의사 1명, 간호사 12명, 보호자 33명 등 81명이 격리 중이며 11층에는 환자 17명, 의사 3명, 간호사 7명, 보호자 11명 등 38명이 있다. 방역당국은 위험도 평가를 토대로 편의시설과 접수대가 있는 1동 1층, 호흡기 내과가 있는 9층 격리 여부와 환자 중증도를 분류해 지역 종합병원으로 전원 추진을 결정한다. 방역당국은 전남대병원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에 따른 의료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앙사고수습본부에 긴급의료인력 지원을 요청했다.
▶2면으로 이어짐 /황애란·길용현 기자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협의회와 SRF저지 나주시민 비상대책위원회가 1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차량 220여대를 동원해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열고 SRF발전소 가동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김성훈 기자

나주 주민들 "광주 쓰레기 반입 반대" 원정시위

이 시장 "SRF는 나주문제... 책임 넘겨선 안돼"

광주시와 나주시의 고흥폐기물 연료(SRF) 반입 등 쓰레기 처리 갈등이 원정시위로 격화됐다.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이전기관 노조 협의회와 SRF저지 나주시민비상대책위

원회는 16일 오전 광주시청 앞에서 규탄대회를 열고 "광주 쓰레기의 나주 소각시도를 즉각 철회하고, 광주 쓰레기는 광주에서 처리하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나주 쓰레기 소각장 문제

가 민관 협력거버넌스 위원회의 파행과 광주시 쓰레기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나주 쓰레기소각장 시설은 거버넌스 4자가 해결할 수 있지만 소각장으로 들어오는 광주 쓰레기는 광주시와 한국지역난방공사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광주 쓰레기 문제는 산자부와 한국지역

난방공사, 광주시가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광주시는 포스코건설 주도로 설립된 민간업체와 난방공사가 맺은 합법적인 계약에 개입할 문제는 아니라고 맞서고 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과 의차담회에서 "SRF는 나주 내부의 문제다. 광주에 책임을 떠넘겨서는 안 된다"며 "인허가권자인 나주시와 전남도, 운영사인 한국지역난방공사, 당시 사업을 관장한 산자부가 해야 할 일이다"고 선을 그었다.

이 "1차적으로 난방공사가 열병합발전소를 가동하느냐 안 하느냐의 문제"라며 "광주시도 2,000억원 가까이 손해를 봤는데 피해지역에 와서 집회를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 시장은 또 "광주시도 피해자지만 말을 안 하고 있다. 난국을 돌파하기 위해 광주시민을 이용하는 것은 아니다"며 "전남도의 협조요청도 없었지만 협조할 것도 없다. 시·도 통합 차원에서 도와줄 것은 도와준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고 강조했다.
/황애란 기자

August, 2020

Forbes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첨단 비즈니스 지식산업센터

IT, 벤처, 스타트업, 1인 기업 등 기업사옥으로 지식산업센터 인기!

히드슨 1041 첨단2지구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첨단 지식산업 플랫폼
광주 최초! 뉴욕 감성의 혁신 비즈니스 시대를 열다

- 분양금액의 최대 80%까지 장기저리융자 가능
- 취득세 50%, 재산세 37.5% 감면 등 세제혜택
- 최대 70억 한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 청년창업, 스타트업 등 창업 지원을 위한 창업지원센터 입주예정

【사업개요】
※ 위치: 광주광역시 북구 연제동 1041번지 ※ 규모: 지하3층~지상15층
※ 대지면적: 6,618.000㎡ ※ 용도: 지식산업센터(공공) 및 근린생활시설 기어터민시설
※ 건축면적: 3,498.68㎡ ※ 연면적: 37,879.33㎡

지식산업센터 184실 | 근린생활시설 77실 |
지산-청고 21실 | 운동 및 문화집회시설 3개소 |

모델하우스 오픈중
T.372-6666

모델하우스: 광주 서구 마름동 165-14